

##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D-8

## “우리도 함께 뛰다”

남도의 봄을 달리는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의 47번째 질주가 8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 마라톤 동호회·기관·단체·시민들이 합친 질주로 3·1운동의 기상을 높이기 위해 대회 참가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단체팀들을 소개한다.



박태식 농협 광주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성공적인 사업구조 개편과 마라톤 대회 선전을 다짐하며 화이팅을 하고 있다.

## “광주 농산물 품질 널리 알릴 기회”

### ■ 농협 광주본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농협이 되겠습니다.”

박태식 농협 광주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제 47회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대회'에 출사표를 던졌다.

농협중앙회는 다음달 2일부터 신용(금융)사업과 경제(농산물 유통) 사업을 분리해 새로 출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광주지역본부는 최근 '정도·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와 항응 제공받지 않기로, 공정한 업무처리를 결의했다.

농협 광주지역본부의 올해 캐치 프레이즈는 '변화하는 NH농협, 선도하는 광주본부'이다. 사업구조 개편의 성공적인 정착과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갈수록 피폐해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농협 스스로 선도적인 변화를 실행하자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직원들은 이번 마라톤 대회를 통해 올해 캐치 프레이즈를 달성하기 위한 결의를 다짐 계획이다.

특히 직원들은 광주 농산물 대표 브랜드인 '빛찬들'과 대촌농협 풋고추, 북광주 농협 딸기, 동곡농협 애호박, 평동농협 방울토마토 등 품질 좋은 광주 농산물을 참가 시민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또한 소값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축산농민들을 위해 소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임직원들의 각오는 남다르다.

지난해 농협에 입사한 상무지점 임미리(여·25) 주임은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겠다는 입사 당시의 각오를 잊지 않고 달리겠다”고 의

지를 다졌다.

지도경제팀 박근일(35) 과장은 아들(8)·딸(7)과 함께 참가해 본인의 건강도 챙기고 가족의 화합을 꾀할 예정이다.

박과장은 “아이들이 힘들어 할 수 있지만, 완주에 따른 성취감을 경험하게 하고 게임보다는 운동을 좋아해 건강한 아이들로 성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5km에 참가하는 기획총무팀 박민정(여·29) 주임은 “이번 마라톤대회 참가를 계기로 남민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기 위해 운동시간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박태식 본부장은 “마라톤을 통해 새로운 농협으로 태어나기 위해 직원들의 결연한 의지를 다지겠다”며 “경영 목표수익 달성은 물론 지역사회와 어려운 농업·농촌에 도움이 되는 농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농협 전남지역본부 조영조 본부장과 쌀사랑마라톤 동호회원들이 3·1절 마라톤 합친 질주를 외치고 있다.

## “전남 농업의 희망 안고 뛰겠다”

### ■ 농협 전남본부

“농촌사랑 운동을 널리 알리고 전남농협 농산물 대표브랜드 ‘햇빛’과 전남 쌀의 명예를 걸고 뛰겠습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조영조 본부장을 비롯해 70여명의 쌀사랑 마라톤 동호인들이 3월 1일 마라톤대회에 참가한다.

전남농협은 국민스포츠인 마라톤을 통해 농촌사랑운동을 마라톤 동호인들에게 알리고, 더불어 전남쌀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마라톤을 통해 도 연합브랜드인 ‘햇빛’을 광주시민에게 홍보하는 전략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전남 농산물의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3·1절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전남농협 임직원들은 “마라톤은 5km, 10

km를 그냥 뛰는 것이 아니다. 팔뚝리며 심장박동의 고동소리를 서로 느끼며 모두가 하나의 목표, 새 희망을 향한 도전이다”며 반드시 완주할 것을 다짐했다.

10km 부문에 참가하는 박인수(52) 동광주 지점장은 “‘자기와의 싸움’인 마라톤을 하게 되면 자연 체력관리는 물론 인내력 등이 길러져 업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전남지역본부는 다음달 신용사업(금융)과 경제사업(농·축산물 유통·판매)으로 분리되는 사업구조 개편과 함께 전남도청이 위치한 남양 신도시로 신사옥을 완공해 이전하는 대변혁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올해에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농·축산물을 더 많이, 보다 안정적으로 팔아 줄 수 있는 ‘판매농협’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도 단위로 추진하

고 있는 애호박·참다래를 포함해 연합사업 품목을 5개 이상 확대 추진해 광역단위 대규모 판매와 마케팅 조직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중앙회 연합사업과 연계한 품목별 공동선별 출하회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조영조 본부장은 “3·1절 마라톤대회가 호남마라톤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전기(轉機)가 되고, 시·도민이 자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하는 자랑스런 스포츠 축제로 자리잡기를 기원한다”며 “전남농협과 농업인들을 위해 적극 참여해 전남농산물 판매와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농협 쌀사랑 마라톤 동호회원들은 “모두가 하나돼 새농촌, 새농협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농촌사랑을 실천하는 전남농협 임직원이 되겠다”며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희망을 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시즌 개막 11일 앞둔 광주 FC

## 마지막 과제 ‘포백 완성’

### 광주월드컵경기장서 훈련

광주 FC가 2012시즌을 위한 마지막 조율에 들어갔다.

중국에서 탐금질을 끝낸 광주 FC가 21일 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서 귀국 후 첫 훈련을 가졌다. 지난 18일 귀국길에 오른 선수단은 20일 밤 숙소에 재소집됐다.

21일 첫 훈련에 나선 선수단은 러닝을 하면서 가볍게 몸을 풀 뒤 미니 게임을 하며 오전 일정을 마무리 했다. 제법 많은 눈이 내린 오후에도 훈련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22일 오전 귀국 후 두 번째 훈련을 갖는 광주는 오후에는 프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부

정방지도육에 참가한다. 프로필사진 촬영도 진행되는 등 11일 앞으로 다가온 2012시즌 개막을 위한 막바지 준비가 이뤄진다.

‘포백 가다듬기’가 3월 4일, 두 번째 시즌을 앞둔 광주의 마지막 과제다.

광주는 중국 전지훈련 기간 상하이 동아상하이 U-20 대표팀 등과 총 15차례의 연습 경기를 갖고 전력을 점검했다.

15번의 연습경기에서 10승3무2패를 기록한 광주는 32득점 12실점의 성적을 냈다.

주양과울로가 11골을 몰아넣으며 전지훈련 득점왕에 올랐고, 북이는 큰 키를 활용한 고공형진으로 광주의 공격에 힘을 불어넣었다.



중국전지훈련을 마친 광주 FC가 21일 월드컵경기장에서 귀국후 첫 훈련을 갖고 2012시즌 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박병주의 이적으로 생긴 수비 공백이 최만희 감독의 고민이었다.

올 시즌 포백 시스템의 활용을 예고한 최 감독은 전지훈련에서 포백을 가동하면서 다양한 전술을 꾀했다. 그러나 중앙수비수의 부재와 함께 광주의 포백 장악은 진행형이다. ‘포백 가다듬기’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최

만희 감독은 ‘세밀함’ 더하기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최 감독은 “스리백과 포백을 적절히 활용할 계획이다. 또 북이가 들어오면서 다양한 전술이 가능하게 됐다. 북이가 장신이기 때문에 측면 공격수들이 크로스를 짧게 하면 안된다”고 웃으며 “정확한 크로스와 세트플

레이 등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포백과 세밀함을 목표로 훈련을 전개하는 광주는 오는 24일 목표로 건너가 목포시청과 연습경기를 갖고 전지훈련의 성과를 평가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28일부터 장애인동계체전

### 광주 금4·종합 9위 목표

제9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오는 28일부터 3월2일까지 전북도 일원에서 펼쳐진다.

강원도가 아닌 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동계체전에는 16개 시·도 731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총 336개의 메달을 놓고 경쟁을 벌인다.

알파인스키·크로스컨트리·무주 턱산 리프트, 휠체어 컬링·아이스슬레지하키·빙상 경기는 전주실내빙상경기장에서 펼쳐진다.

4개 종목(빙상, 컬링,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에 36명의 선수단을 파견하는 광주는 20일 장애인체육회 대회실에서 결단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했다.

광주는 전통적으로 강세 종목인 빙상에서 4개의 금메달 획득과 휠체어컬링 8강 진출을 목표로 해 종합 9위를 노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

http://www.hkcarland.com (일일신협 조합원의 집)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랜드가 하는일: 루마센팅, 3M코팅, 모비스센팅, 맥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용클리너, 허부언더코팅,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비게이션,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샤크안테나, 자동차경비일체, 빗데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한국타이어, 글로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천연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비뒀방울, 천장방울, HID램프, LED램프, 모비스순정용품, 키약세서리 일체, 전국최저가 판매, 국내최대 500평매장, 주차장 700평 주차격정 끝, 임동 자동차거리 중간사거리(20번점)

### 아이나비 | 만도네비 | 모비스네비

### 블랙박스 | 후방카메라 | 샤크안테나

### 도난경보기 | 이자카 | 스타트버튼

▶ 거치형 본인 네비 맵핑 전자총 12만원 ⇒ 12만원  
 ▶ 아이나비KL100, 3D(8G)+마감제+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50만원  
 ▶ 아이나비ES500, 2D(4G)+마감제+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47만원  
 ▶ 만도정품MD300, 2D(4G)+마감제+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45만원  
 ▶ 만도지니 J7, 2D(4G)+마감제+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48만원 ⇒ 40만원  
 ▶ 모비스폰토스 PU-7, 3D+마감제+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60만원 ⇒ 52만원  
 ▶ 모비스폰토스 K-7, 2D+마감제+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45만원  
 ▶ 트립형 맵핑차량용 상담후결정

만도 블랙박스 BN100

- ▶ 본인네비 맵핑 = 7만원 ⇒ 12만원
- ▶ 후방카메라 = 15만원 ⇒ 9만원
- ▶ 샤크안테나 = 10만원 ⇒ 6만원
- ▶ 만도블랙박스 8기가 전, 후방 = 35만원 ⇒ 30만원
- ▶ 모비스블랙박스 4기가 전방 = 22만원 ⇒ 19만원
- ▶ 모비스블랙박스 8기가 전, 후방 = 37만원 ⇒ 33만원

대한민국 대표 후방카메라 시그널 후방카메라

최고 추가부품(옵션) 차량은 금액이 추가 될수 있음 \*차량용 고급함수 2만원 상당 무료증정

- ▶ E770B 40만원
- ▶ E7-S 43만원 / E7-B 51만원
- ▶ E7 37만원
- ▶ E7 17만원
- ▶ E1 7만원
- ▶ E2620 10~14만원
- ▶ E5500 25만원